



변리사스쿨

2024년도 대비 제61회

Care+ 관리형 스파르타 1차종합반

다양한 상황의 수험생들이 존재하는 변리사수험가
변리사스쿨의 '관리형 1차종합반'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N시생

직장인/군인

노베이스

**나에게 맞는
수험전략**

**환경변화
의지,노력**

합격

**빠르게 끝내는
수험생활**

**효율적인
공부**

다양한 상황의 수험생들이 존재하는 변리사수험가
변리사스쿨의 '관리형 1차종합반'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종합반에서는 여러유형의 수험생을
합격까지 안내하였습니다.

1. 베이스가 없는 비이공계학생
2. 1차, 2차 시험 동시 준비
3.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군인



종합반

합격수기 - 59회 최종합격 - 이효정[종합반]

육아병행 맘시생

산업재산권법 (95점)

1) 특허법

특허법을 가장 먼저 공부했습니다. 조현중 변리사님의 기본강의를 듣고 조문 특강을 들었습니다. 조문특강에서 조문 하나하나 개정 사유까지 세심하게 설명해주셔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법을 배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문특강을 들으면서는 진도에 맞춰 OX문제강의도 함께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시간이 부족하여 **OX문제집만 들고 이동 시 휘리릭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1차 시험은 기출문제 풀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듣고 계속 회독하여 틀린 문제를 반복하고 기본서로 다시 보았습니다.

또한 특허법은 심사기준사항도 지문으로 많이 등장하기에 심사기준 정리강의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차 시험에는 판례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하여 **판례집에서 결론 부분만을 발췌한 노트를 만들어 그 부분만 식사시간 등 자투리 시간에 훑어보았습니다.**

2) 상표법

김영남 변리사님의 기본강의, 객관식강의, 기출강의, 최종정리강의를 들었으며,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OX문제집을 들고다니면서 강의 진도에 맞추어 맞춰보며 공부했습니다.**

삼시 때 다시 1차시험 준비할 때는 2차공부하면서 판례의 내용과 결론을 알고 있어 훨씬 수월하게 문제풀이 할 수 있음을 느꼈는데, 이에 미루어보았을 때 상표법 판례를 1차 때 미리 훑어보면 1차뿐 아니라 2차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마지막 12월,1월에 회독만 할 수 있도록 단권화 하는 작업**을 해서 시험 준비했습니다.

또한 법 개정여부를 공부 중간중간 확인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개정법 특강이 있을 때 산재법 모두 특강을 들어 보완**했습니다.

종합반

합격수기 - 59회 최종합격 - 이효정[종합반]

육아병행 맘시생

3)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은 시간이 부족해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는 못들었고, 기본강의, 기출강의, 최종정리강의를 들었으며 작년에 디자인보호법이 아주 디테일하게 출제된 바 있어 그에 대비해 꼼꼼히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허법과 기본 구조가 같아서 공통되는 부분은 특허법을 다시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개정 사항이 많아서 당초 외웠던 내용과 달라진 부분을 구분해서 공부하는데 유의해서 했습니다. 3법 중에서 가장 공부시간을 많이 적게잡고 했습니다. 문제수에 비례하여 공부 시간을 나누어 공부했습니다

종합반 경험

조현중,김영남 변리사님께서 운영하는 종합반에서 2차시험에 대해 맛보기 느낌으로 알고 싶어서 2차종합반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때 기본강의와 판례 강의, 기초GS를 써보았는데 이 때 저는 판례강의를 심도있게 공부하게되어 1차에서 판례문제는 쉽게 풀이가 가능했고, 2차 시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차시험 때문에 긴 시간을 종합반생활을 못하였지만, 다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스터디가 결성되고 암기스터디, 기상스터디, 쓰기스터디 등을 다양하게 하면서 직접 변리사님께 쓰기 피드백이나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상담**등을 받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종합반

합격수기 - 59회 최종합격 - 이효정[종합반]

육아병행 맘시생

3)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보호법은 시간이 부족해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는 못들었고, 기본강의, 기출강의, 최종정리강의를 들었으며 작년에 디자인보호법이 아주 디테일하게 출제된 바 있어 그에 대비해 꼼꼼히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허법과 기본 구조가 같아서 공통되는 부분은 특허법을 다시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개정 사항이 많아서 당초 외웠던 내용과 달라진 부분을 구분해서 공부하는데 유의해서 했습니다. 3법 중에서 가장 공부시간을 많이 적게잡고 했습니다. 문제수에 비례하여 공부 시간을 나누어 공부했습니다

종합반 경험

조현중,김영남 변리사님께서 운영하는 종합반에서 2차시험에 대해 맛보기 느낌으로 알고 싶어서 2차종합반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때 기본강의와 판례 강의, 기초GS를 써보았는데 이 때 저는 판례강의를 심도있게 공부하게되어 1차에서 판례문제는 쉽게 풀이가 가능했고, 2차 시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1차시험 때문에 긴 시간을 종합반생활을 못하였지만, 다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스터디가 결성되고 암기스터디, 기상스터디, 쓰기스터디 등을 다양하게 하면서 직접 변리사님께 쓰기 피드백이나 공부방법에 대한 고민상담**등을 받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종합반

합격수기 - 59회 최종합격 - 송효주[종합반][생동차합격]

산업재산권법 (92.5)

1) 특허법

조현중 변리사님의 기본강의를 들으며, 강의 들은 부분의 법조문은 당일에도 바로 암기하였고, 다음날 백지에 관련있는 조문끼리 엮어서 마인드맵을 그리듯이 복습하였습니다. 덕분에 기본강의를 다 들을 시점에 조문암기는 거의 되어 있는 상태였고, 변리사님이 특허법의 컨셉 등에 관해 이해를 많이 시켜주신 덕분에 2차 공부를 하면서도 법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판례강의를 수강하였고, 판례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판례노트 전문 3회독, 스스로 체크한 부분과 밑줄 그어진 부분 3회독 하였습니다.

사실 객관식문제집 한 권만 제대로 풀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문제풀이가 지겹게 느껴져서 OX, 기출문제집, 객관식문제집 전부 풀었고, 홀수번 1회독, 짝수번 1회독, 틀린문제 1회독씩 하였습니다.

시험 2-3달전쯤에는 조문노트, 판례노트, 문제집 전부 다시 봐야할 페이지에 플래그를 붙여놔서 회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 딱히 단권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회독을 돌리되 완벽히 각인된 내용은 플래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봐야 할 내용을 줄여나갔습니다. 시험 전날 조문노트, 판례노트, 객관식노트 각각 1회독씩 하는데 2시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종합반

합격수기 - 59회 최종합격 - 송효주[종합반][생동차합격]

2) 상표법

김영남 변리사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상표법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좋은 말"이 전부 납득이 가지 않아 공부를 포기할 뻔했으나, 민법을 처음 공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기본강의를 들으면서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일단 완강하는데 의의를 두었습니다. 이후 **기본서를 빠르게 한 번 회독한 후 핵심이론정리를 수강했고, 그때서야 지식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핵심이론정리를 수강한 후에는 웬만한 기출문제는 답을 찾을 수 있었으나, 판례들의 주소가 파악되지 않았기에 1차 준비기간이 나름 긴 편이라는 판단 하에 판례심화강의를 수강했습니다. **2차생이 아니었기에 배속을 올려 빠르게 진도를 뺐고, 복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으나, 진도나간 날 판례를 한 번씩 읽어보며 복습**했고 강의를 수강한 이후 판례들의 주소가 잡히기 시작하여 문제풀이에 확신도 생겼습니다.

2차시험

(1) 생활패턴 및 공부시간

1차시험은 본가에서 준비했었기에 역삼에 방을 잡고 올라온 때가 22년3월4일이었고, 그때까지는 휴식 및 이사준비로 공부를 하루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스스로 동차는 힘들거라 생각하여 3월 내도록 오후1시쯤 자습실에 가서 공부하다가 오후8시쯤 집에 오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4월에 종합반 분들과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살면서 스터디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적도 없고, 원래 혼자서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스터디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이 들기도 했으나, **서로 질문도 하고 암기 확인도 해주고 출석도 확인해준 덕분에 공부 효율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8시반 자습실 출석하기로 커피내기도 자주 하고, 공부가 안 될 때에는 학원 주변을 산책하면서 판례를 암기했던 덕분에 큰 스트레스 없이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동차생의 2차준비기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슬럼프를 겪지 않는 것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스터디원들과 GS끝난 후 맥주 한 캔 마시거나 학원 오가다 마주칠 때 두문자 암기 확인했던 것들이 꽤 재밌었기에 큰 슬럼프 없이 동차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2차진입 초기에는 갈피를 잡지 못해 공부시간이 짧았으나, 차츰 늘려 나가 시험 한 달 전쯤에는 오전9시부터 밤12시 정도까지 매일매일 공부했고, 침대 주위나 세면대거울 등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암기했습니다.

종합반

합격수기 - 59회 1차합격 - 강은수[종합반]

노베이스, 고득점
물리 (6/10)

- 기본강의, 객관식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 물포자여서 물리에 관해서 아예 모르는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기본강의에서는 개념 하나하나 처음부터 가르쳐주시는데 제가 이해할 정도면 거의 모든 분들이 쉽게 잘 들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공식을 모두 암기하는 게 힘들었고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공식을 써야 하는지 잘 숙지가 안 되어 객관식 강의도 수강했습니다.

객관식 강의를 들으면서 공식집을 만들었고 처음에는 공식을 보면서 공식을 문제에 적용하는 것부터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자 공식을 암기하여 문제를 풀었고 막바지에는 기출과 무료로 배포해주신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습니다.

화학 (7/10)

- 기본강의, 객관식 강의 / 김선민 교수님의 산염기 특강(실강)을 수강했습니다.

- 화학 점수가 너무 잘 나왔는데 무려 3문제를 찍어서 맞혔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물리보다 화학을 더 어려워했고, 기본강의를 듣고도 사실 머릿속에 별로 내용이 남는 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망설임없이 객관식 강의를 수강했고 정말 잘한 선택이라 생각이 듭니다. 해당 단원의 개념을 다시 복습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식집을 만들었으며 이를 문제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 객관식 강의를 수강한 뒤에도 산염기 파트는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김선민 교수님의 산염기 특강을 들었습니다. 외워야 할 공식을 많이 줄여주셨고 아예 버리려 했던 파트를 적어도 건드려볼 수는 있게 됐다는 점에서 좋았습니다.

- 비록 찍어서 생각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받았지만 만약 찍은 문제들을 전부 틀렸다 하더라도 합격권 점수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과학 과목 중 어느 하나가 자신 없더라도 절대 버리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선택과 집중 물론 좋지만 그것도 화학 문제 10개 맞힐 노력을 할 시간에 지구과학이나 생물을 더 공부하라는 말이지, 화학을 아예 버리라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합반

합격수기 - 59회 1차합격 - 강은수[종합반]

노베이스, 고득점

생물 (10/10)

-박윤 교수님의 기본강의(실강), 핵심OX강의 일부(실강) / 김민 교수님의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1문제(C4 식물)는 찍어서 운 좋게 맞혔고 9문제는 풀어서 맞았습니다.

-박윤 교수님께서 정말 재밌게, 이해하기 쉽게 잘 가르쳐주셔서 단백질 이동경로, 세포호흡, 광합성 등 기본적 내용을 익히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데 혼자서 문제를 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느끼고 마음이 불안해져서 종합반의 같은 조원이 추천해준 김민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민 교수님 기본강의를 너무 늦게 듣기 시작하여(10~11월쯤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급하였으나, 기본강의에서 진도에 맞춰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주셔서 기본강의를 2번 들으면서 기출문제도 같이 회독하였습니다. 두문자를 알려주셔서 기억에 잘 남았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암기하기 좋았습니다.

지구과학 (10/10)

-기본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어려워했던 천구문제를 쉬운 문제로 만들어주셨고 지구과학도 이런저런 암기할 게 많은데 강의를 듣다보면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 기본강의를 마친 뒤에는 복습하면서 기본서의 중요한 내용을 최대한 필기노트 교재에 옮겨적으려 했고 이 필기노트로 단권화했습니다.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전문 변리사 학원



변리사스쿨

